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임현아
이메일	lha8170@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58

보 도 자 료

한미동맹 70주년, 새로 발굴된 필름으로 확인하는 미군과 UN의 6.25 전후 원조/재건사업 현장

한국영상자료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지에서 기록영상 필름 24롤 발굴
미군, UN과 한국 국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각지 재건 모습 생생하게 담겨
주요 영상은 7월 27일(목)부터 한달 간 영상자료원 KMDb 사이트에서 무료 공개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등지에서 발굴한 미군 촬영 기록영상을 공개한다.

영상은 NARA 및 남캐롤라이나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로, 서울, 인천, 부평, 안양, 의정부, 파주, 고양, 동두천, 포천, 원주, 대구, 그리고 ‘수복지구’ 철원 지포리 등지에서 미군과 UN이 한국 국민들과 함께 전쟁의 상흔을 딛고 활발히 진행했던 재건 사업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영상자료원은 7월 27일부터 한달 간 KMDb 사이트(www.kmdb.or.kr)를 통해 영상의 일부를 일반에 무료 공개할 예정이다.

☐ 새롭게 발굴, 공개되는 미군과 UN의 전후 원조 및 재건사업 현장

미군과 UN의 한국 원조, 재건사업은 한국전쟁 중에 시작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비준됐던 1953~1954년 및 무상원조의 형태에서 서서히 차관 등 유상원조로의 정책 전환이 모색되던 1962~1963년 시기에 활발히 전개됐다. 정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치며 형성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군사동맹 및 경제원조 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가져왔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 가장 이른 것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4월에 미 극동사령부(FEC)의 영상팀이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교육 및 산업 재건 활동을 동시녹음으로 촬영한 것이다.(NARA 관리번호 : 111-LC-29478)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은 미군대한원조(AFAK, 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했던 1953~1954년, 1962~1963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AFAK는 1953년 11월부터 시작해 1971년까지 지속됐던 주한미군 주도의 ‘소규모’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으로서 총 6,695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주로 미군 부대 주둔지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 문화 및 교육기관 지원과 고아원, 병원, 학교 건설 등의 활동을 펼쳤다.



장소미상, 정전협정일 초등학교 교과서 운송



영등포 경성방직 공장 정상화

□ 전쟁의 상흔을 뒤로하고 함께 흘린 땀과 교감의 순간들

발굴된 영상들은 냉전기 이념 체제 경쟁에서의 우월함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는 미군과 그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한국인’의 구도가 의도적으로 강조된 연출이 보여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영상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촬영 의도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재건 사업에 임하는 일선의 미군들, 나아가서는 한국의 지역민들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미군이 함께 배구 시합을 하는 장면(NARA 관리번호 : 111-LC-47508)은 진정성 있는 원조의 현장을 여실히 담고 있어 인상적이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조사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는 “당시 한국인들은 영상에 보이는 모습처럼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했으며, 재건사업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발굴, 교차 검증하여 원조, 재건 사업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요 영상은 7월 27일부터 KMDb 사이트에서 일반에 무료 공개

이번에 발굴된 영상은 필름 24릴 약 190여 분 분량이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6릴을 선정하여 7월 27일부터 한 달간 영상자료원 KMDb VOD 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 원조 및 재건 사업을 재조명하기 위해 발굴된 영상을 선별하여 선 공개하며, 이번에 발굴 수집한 24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30여 릴을 수집, 연구 및 해제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한국영상자료원 KMDb의 ‘기록영상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자료원은 지난해부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와 함께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중심으로 <해외 소재 한국 근현대 기록영상 컬렉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금년 초 발굴한 김기영 감독의 데뷔작 <죽엄의 상자>(1955년, 음향 유실) 스크립트를 영상에 입혀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한 기록영상 학술회의를 통해 선 공개한 바 있다.

[참고자료] 발굴영상 주요 내용분석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정치적·군사적 목적에서 제작한 것으로, 냉전적 대결에서의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남한에서 전후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시각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피사체로서 촬영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미군의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때때로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거나 부차적인 존재로 누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전후 재건사업에서 결코 수동적이지만은 않았다. 예를 들어, 전후 재건사업의 핵심으로 ‘학교’를 선택한 것은 미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주의 어느 문산중 졸업생은 1970년대에 “<이럴 수가, 전시에 그것도 우리네가 먹고 버린 깡통을 주워다가 교실 지붕을 덮고 교육을 하다니, 이럴 수가... 이 지상에 이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교육의 이 뜨거운 열기가 펄펄 끓어오르는 한 이 민족은 패망하지 않으리라>는 눈물 어린 미군 병사의 찬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급기야 미군 장병들이 모금 운동까지 벌여 모교의 저 돌건물을 짓는데 보탬다는 뒷얘기를 가슴 짙하게 들으며, 우리들의 중고 학창시절은 부풀어 가기만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미군의 인도주의적인 의도에 앞서 한국인들의 재건 의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영상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져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재건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문서 자료, 언론 기사, 생존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이것을 이 영상들과 교차해서 검증하는 작업은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제공)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29478	1952.04.14.	서울 영등포	영등포국민학교, 경성방직 공장	음성, 인터뷰



영등포국민학교



경성방직공장

-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2년 4월의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교육 및 산업 재건 활동에 대한 기록 영상에서 시작
- 미 극동사령부 영상팀이 UNCACK 서울팀의 전쟁 중 한국의 교육 재건 활동을 촬영
- 미국 등 ‘자유진영’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전시/전후 재건 활동을 소개하고 전지구적 냉전의 사상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TV시리즈 제작을 위한 것으로 추정
- 당시로선 드물게 대본에 따라 영등포 국민학교와 경성방직 공장이라는 야외에서 대본을 준비하고 통제된 촬영을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동시녹음으로 진행. 전시 교육 시설의 피해 실태와 부족한 교사 수와 종이, UNCACK의 재건 계획과 활동 방향, 교실이 없어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700명의 학생들, 한국인 교장의 인터뷰 등 당시 실상을 잘 보여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4944	1953.07.27.	원주	정전협정 발효일 교과서, 어린이 공연	

	
국어책을 이송하는 장면	어린이들이 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 1953년 7월 24일 원주 제2피난민수용소에서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 피난민수용소 내부의 일상생활 장면이 찍혀 있는 영상
- 전쟁이 끝나기 직전의 모습
- 정전협정이 발효된 7월 27일에 초등학교 6학년 국어책을 인쇄하여 이송하는 장면, 어린이들이 교사의 지도로 춤과 노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담김
- 정전 직후 곧바로 시작된 전후 재건사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4997	1954.2.19.	서울 영등포 건설현장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영등포 인쇄공장 건설	



영등포 인쇄공장



영등포 인쇄공장 건설현장

-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13만 달러, 유네스코가 10만 달러를 원조하고, 한국 정부와 대한 문교서적회사가 자금을 투입해 건설되고 있는 영등포 인쇄공장의 모습
- 같은 해 9월 최신 인쇄시설을 갖추게 되는 이 공장에서 막대한 국민학교 교과서들이 인쇄될 수 있었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6062	1954.07.20.	인천 화도진	화도예배당(화도감리교회)	



화도예배당 건설공사 장면



미군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 인천 화도진에서 재건 중인 화도예배당 모습
- 건설 공사 장면, 미군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목사가 건물 기둥에 성경으로 추정되는 책을 넣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6063	1954.07.21.	대구	사동우유죽급식소, 계성고아원, 계성고등학교	



사동우유죽급식소



계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

- 대구 사동의 우유죽급식소에서 배급을 받고 있는 장면
- 우유죽급식소는 1951년부터 피란민과 극빈자 아이와 노인들의 구호를 위해 각 도시에 설치되었고, 전쟁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운영됨. 당시 사람들은 우유죽을 ‘하느님의 젓먹이’ 라고 부르기도 함.
- 이 영상에는 대구 계성고아원으로 원생들이 들어가는 장면, 계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어린이들이 벽돌을 나르면서 재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6316	1954.04.05.	철원 지포리	지포리[수복지구]	



지포리 수복지구



지포리 수복지구 내 민간인

- 철원 지포리에서 미군대한원조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
- 촬영이 이루어졌던 1954년 4월 이 지역은 유엔군사령부의 점령통치(미 2사단 관할) 지역으로 군정이 실시
- 군부의 지휘 아래 현지인들로 구성된 민정부가 구성. 1954년 3월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철원 지포리에도 민간인 재거주가 가능해짐. 이 지역이 한국 영토로 편입된 건 1954년 11월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후. 정전협정으로 한국이 회복한 수복지구역에서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통제가 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37243	1955.01.20.	부평 성심동, 안양	크리스천 헤럴드 매거진 편집자 집행위원 다니엘 A. 폴링 박사 내한, 부산 동성보육원, 부평 성심동고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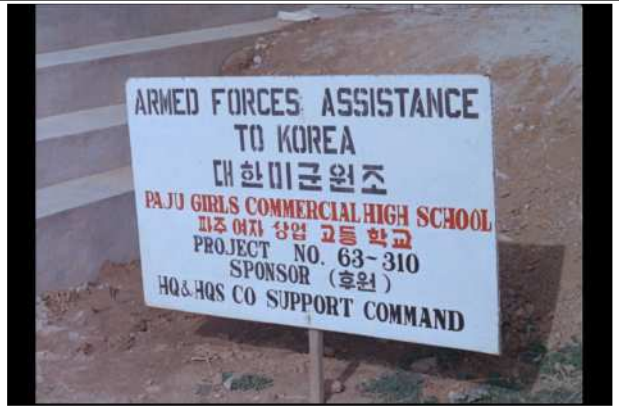
	
다니엘 폴링박사 내한장면	동성보육원 시찰하는 모습

- 크리스천 헤럴드 매거진의 편집인이자 크리스천 아동기금 집행위원인 다니엘 폴링 박사의 내한 장면
- K9비행장(부산)에서부터 환영을 받은 폴링 박사는 기독교 국제원조사업의 거물이었고, 이 영상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환담하는 장면도 나옴. 부산의 동성보육원과 부평의 성심동고아원 등 전국의 교회시설과 보육시설을 시찰하는 장면. 미군이 원조사업에서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상.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47508	1963.11.12.	파주, 금촌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	컬러
111-LC-47509	1963.11.13.	파주, 의정부	파주 율곡중고등학교	컬러
111-LC-47510	1963.11.15	고양, 동두천	동두천 복지병원	컬러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배구하는 모습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



파주율곡중고등학교에서 교정을 정비하는 장면



파주율곡중고등학교에서 교정을 정비하는 장면



동두천복지병원



동두천복지병원 건설장면

- 1960년대부터 영상은 칼라필름으로 촬영
- [111-LC-47508] 파주여상 건물은 대한미군원조로 만들어짐. 영상에서는 인근 기지의 미군 장병들이 파주여상을 방문해 함께 배구를 하고 모습 등장. 대한미군원조 프로그램은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들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
- [111-LC-47509] 파주 율곡중고등학교에서 미군과 교직원, 고등학생들이 “함께” 교정을 정비하는 장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중학생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인상적.

- [111-LC-47510] 동두천 복지병원 건설 장면을 담은 영상. 대한미군원조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공공/민간 병원들이 건축될 수 있었음.

NARA 관리번호	생산 연도	배경 지역	주요 키워드	특징
111-LC-47652	1964.2.25	서울	서울 도로정비, 남대문, 네온사인, 국립보건연구원	컬러

	
남대문	네온사인이 켜진 서울 야경

- 1964년 서울의 여러 풍경을 담은 영상
-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인상적
- 한강대교 남쪽으로 정비된 도로가 보이며, 여전히 자동차와 소달구지가 함께 다니고 있는 모습도 보임
- 남대문의 모습. 밤이 되자 “젯소포 대한마아가린, 한국타이야, 오리온 카라멜, 삼강 아이스크림” 등 네온사인이 켜진 1964년 서울 야경의 모습이 이색적으로 다가옴
- 신축된 국립보건연구원 건물. 국립보건연구원은 1963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양시험소가 통합되어 발족했는데, 영상 속 건물은 그렇게 시작된 신축 건물을 담고 있음.